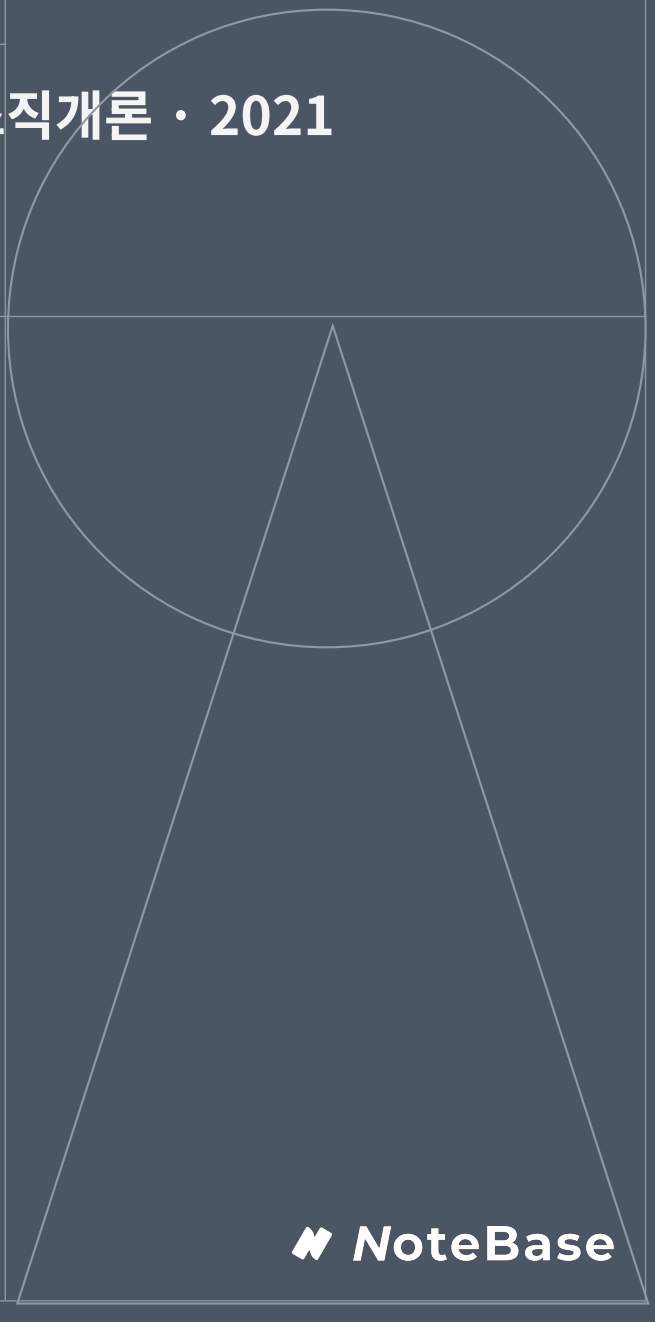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21

공무원/지방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21

문 1. 한국목록규칙 제4판의 기술총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 자료를 다른 자료와 식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범위로 한다.

② 복제물은 기본적으로 그 대본인 원자료를 기술의 대상으로 한다.

③ 서지사항의 식별요소로 국제표준서지기술에서 규정한 구두법을 적용한다.

④ 합집이나 총서에 수록된 개별 저작을 기술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그 대본인 원자료'는 **복제물 자체**로 고쳐야 한다. 한국목록규칙 제4판은 복제물을 기술할 때 원자료가 아니라 실제 기술 대상인 복제물을 기준으로 삼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서지기술은 특정 자료를 다른 자료와 구별할 수 있도록 그 자료의 특징을 기록하는 것이다. 따라서 표제, 책임표시,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등 **자료 식별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기술의 범위로 한다.

② X: 복제물은 기본적으로 **복제물 자체**를 기술의 대상으로 한다. 복제의 바탕이 된 원자료와 내용이 같더라도 발행사항이나 물리적 형태는 다를 수 있으므로, 원자료를 복제물의 기술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선지의 '그 대본인 원자료'를 '복제물 자체'로 고쳐야 한다.

③ O: 서지사항과 각 요소를 구별하기 위해 **국제표준서지기술(ISBD)의 구두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표제와 책임표시 사이의 빗금(/)처럼 정해진 부호를 사용하면 각 정보가 어떤 요소인지 일관되게 식별할 수 있다.

④ O: 기술 대상은 합집이나 총서 전체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그 안에 수록된 **개별 저작**으로 삼을 수 있다. 여러 저작을 묶은 자료에서도 특정 저작을 하나의 기술 단위로 다룰 수 있다는 뜻이다.

NoteBase

문 2. Charles Ammi Cutter가 제시한 목록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용자가 알고 있는 저자명, 표제, 주제명으로 자료를 검색하게 한다.

②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특정 도서를 저자명, 주제명, 문헌의 유형으로 보여 준다.

③ 특정 판 또는 저작의 특성에 따라 자료의 선정을 지원한다.

④ 문헌 간의 관계를 제시하여 목록의 안팎을 항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목록의 안팎을 항해'하는 기능은 문헌 간 관계를 따라 관련 자료로 이동하게 하는 **항해 기능**으로, 후대의 국제목록원칙에서 명시되었다. Cutter가 제시한 목록의 목적은 **검색·집중·선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이용자가 **저자명·표제·주제 중 알고 있는 정보**를 단서로 도서를 찾도록 하는 검색 기능이다. 예를 들어 표제만 아는 경우에도 그 표제로 해당 도서를 찾을 수 있게 한다.

② O: 특정 저자의 저작, 특정 주제의 자료, 특정 문헌 유형의 자료 중 도서관이 무엇을 소장하는지 보여 주는 **집중 기능**이다. 개별 도서 한 권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소장 자료를 모아 보여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③ O: 도서의 **판과 저작의 성격**에 따라 이용자가 필요한 자료를 고르도록 돕는 선정 기능이다. 판에 관한 서지적 정보와 문학적·주제적 성격에 관한 정보는 이용 목적에 맞는 도서를 선택하는 근거가 된다.

④ X: 문헌 간 관계를 제시하여 목록 내부와 외부의 관련 자료로 이동하게 하는 것은 **항해 기능**이다. 이는 2009년 국제목록원칙에 명시된 기능이며, Cutter가 제시한 세 가지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Cutter의 목록 목적은 알려진 정보로 도서를 찾는 검색,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소장 자료를 모아 보여 주는 집중, 판이나 저작의 성격에 따라 자료 선택을 돕는 선정으로 구분한다.

NoteBase

문 3. 한국목록규칙 제4판의 기술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271 p. : 지도, 삽화, 초상 ; 21 cm
(기타형태사항으로 지도, 삽화, 초상이 수록됨)

② 800 p. (쪽수 복잡)
(190 p., 300 p., 310 p.의 3종의 쪽수나 장수매김의 자료임)

③ 학위논문(석사) - 한국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10
(학위논문 자료임)

④ 동경 : 한림사, 2020
(발행지가 동경, 부산의 순으로 열기된 경우임)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학위논문 주기는 **학위 구분·학위수여기관·전공·학위수여연도**를 정해진 순서로 기록한다. '학위논문(석사) - 한국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10'은 이 형식에 맞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여러 종류의 삽화류를 구체적으로 기록할 때는 **'삽화'를 먼저 쓰고**, 나머지 종류명은 가나다순으로 배열한다. 따라서 '지도, 삽화, 초상'을 '삽화, 지도, 초상'으로 고쳐 '271 p. : 삽화, 지도, 초상 ; 21 cm'로 기술한다.

② X: 쪽수나 장수매김이 둘 또는 셋으로 나뉘면 **각 부분의 수를 놓인 순서대로 쉼표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제시된 자료는 세 종류의 쪽수매김이므로 '190, 300, 310 p.'로 기술한다. '800 p. (쪽수 복잡)'처럼 합계와 쪽수복잡 표시를 쓰는 방식은 네 종류 이상으로 쪽수나 장수매김이 복잡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O: 학위논문 주기는 '학위논문(학위구분) - 학위수여대학과 대학원, 전공학과와 전공명, 학위수여연도'의 형식으로 기록한다. 선지는 **석사라는 학위 구분**을 원괄호 안에 쓰고, 붙임표 뒤에 한국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10을 차례로 기록했으므로 이 형식에 부합한다.

④ X: 외국의 발행지 다음에 우리나라의 발행지가 기재되어 있으면 **첫 번째 외국 발행지에 이어 국내 발행지도 병기**한다. 동경 다음에 부산이 제시되었으므로 동경만 기록해서는 안 된다. 두 발행지를 쌍반점으로 구분하여 '동경 ; 부산 : 한림사, 2020'으로 기술한다.

NoteBase

문 5. 종합목록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OCLC의 WorldCat
ㄴ. 호주 국립도서관의 PANDORA
ㄷ. 국립중앙도서관의 KOLIS-NET
ㄹ.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DDOD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WorldCat과 KOLIS-NET은 여러 도서관의 **서지정보와 소장정보를 통합**하여 자료를 찾고 소장 도서관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종합목록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종합목록은 둘 이상의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의 서지정보를 모으고, 각 자료를 어느 도서관이 소장하는지 함께 알려 주는 목록이다. 단순히 여러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는 점보다 도서관들의 목록과 소장정보를 통합한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ㄱ. 종합목록: OCLC의 WorldCat은 세계 여러 도서관이 협력하여 구축한 목록으로, 자료의 서지정보와 **소장 도서관 정보**를 제공한다. 같은 자료를 어느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종합목록의 사례이다.

ㄴ. 웹 아카이브: 호주 국립도서관의 PANDORA는 호주와 관련된 웹사이트와 온라인 간행물을 선별하여 **수집·보존**하는 사업이다. 여러 도서관의 소장 목록을 통합하는 종합목록이 아니라, 사라지거나 바뀔 수 있는 웹 자원을 보존하는 웹 아카이브에 해당한다.

ㄷ. 종합목록: 국립중앙도서관의 KOLIS-NET은 **국가자료종합목록**으로, 참여 도서관들의 서지정보와 소장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이용자는 자료를 검색하고 이를 소장한 도서관을 확인할 수 있다.

ㄹ. 학위논문 원문 데이터베이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DDOD는 **해외 박사학위논문 원문**을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여러 도서관의 소장정보를 통합한 종합목록이 아니라 학위논문 원문 제공 서비스에 해당한다.

종합목록의 사례는 ㄱ과 ㄷ이며, ②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6. 한국목록규칙 제4판을 적용하여 KORMARC(통합서지용, 2014 개정판) 형식으로 작성한 레코드의 일부이다. (가), (나)에 들어갈 표시기호는? (단, 지시기호와 띄어쓰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245	▼a다산의 재발견: ▼b어떻게 조선 최고의 학술 그룹을 조직하였는가 /▼d정민 지음
(가)	▼a서울 : ▼b휴머니스트, ▼c2011
(나)	▼a정약용, ▼d1762-1836
700	▼a정민

① (가): 260, (나): 500
② (가): 260, (나): 600
③ (가): 300, (나): 500
④ (가): 300, (나): 6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서울·휴머니스트·2011'은 **발행지·발행처·발행년**을 나타내므로 260 필드에 해당한다. '정약용, 1762-1836'은 책을 쓴 사람이 아니라 **책에서 다루는 인물의 주제명**이므로 600 필드에 해당한다.

빈칸별 해설

(가) 260: 260은 '발행, 배포, 간사사항'을 기술하는 필드이다. 제시된 ▼a서울은 발행지, ▼b휴머니스트는 발행처, ▼c2011은 발행년이므로 **발행사항에 해당하는 260**을 넣는다. 300은 면수·권책수, 삽화 등의 물리적 특성, 크기 등을 기술하는 '형태사항' 필드이므로 이 내용과 맞지 않는다.

(나) 600: 600은 '주제명부출표목 - 개인명' 필드로, 자료가 다루는 인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개인명을 기술한다. 여기서 ▼a정약용은 개인명, ▼d1762-1836은 생몰년이다. 245 필드의 책임표시가 '정민 지음'이므로 저자는 정민이며, 정약용은 **자료의 주제가 되는 인물**이다. 500은 '일반주기' 필드로, 다른 특정 주기 필드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정보를 기술하므로 개인명 주제명부출표목을 대신할 수 없다.

(가) 260, (나) 600의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7. KORMARC(통합서지용, 2014 개정판)의 기술내용으로 (가) ~ (라)에 해당하는 더블린코어(DC)의 요소로 옳은 것은? (단, 지시기호와 띄어쓰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020 ▼a9788976791659
(나) 056 ▼a942 ▼26
245 ▼a미국의 역사 (다) ▼h[전자자료] / ▼d토마스
헌터 지음
(라) 650 ▼a미국 역사

① (가) – identifier
② (나) – format
③ (다) – subject
④ (라) – type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가)의 020 ▼a는 자료를 식별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기록한다. ISBN은 특정 자원을 구별하는 식별자이므로 더블린코어의 **identifier**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가)의 020은 국제표준도서번호 필드이며, ▼a의 9788976791659는 ISBN이다. 더블린코어의 **identifier는 자원을 식별하는 번호나 문자열**을 기술하는 요소이므로 ISBN과 연결된다.

② X: (나)의 056은 한국십진분류기호(KDC)를 기록하는 필드이다. 분류기호 942는 자료의 주제 분야를 나타내므로 **subject**에 대응한다. format은 파일 형식, 물리적 매체, 크기 등 자원의 형태에 관한 요소이므로 주제 분류기호와 구별된다.

③ X: (다)의 245 ▼h[전자자료]는 자료종별성격을 나타내는 자료유형표시이다. 여기서는 자료의 종류를 나타내는 **type**에 대응한다. subject는 자료가 무엇에 관하여 다루는지를 나타내므로, 전자자료라는 자료유형을 주제로 연결할 수 없다.

④ X: (라)의 650은 일반주제명을 기록하는 주제명부출표목 필드이다. '미국 역사'는 자료가 다루는 내용이므로 **subject**에 대응한다. type은 자원의 성격이나 장르를 나타내는 요소이므로 주제명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8. 한국목록규칙 제4판의 자료유형 기술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대등표제가 있는 경우 대등표제 다음에 각괄호([ ])로 묶어 기재한다.

② 두 가지 이상의 자료 유형을 기술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주된 유형을 기재하고, 나머지를 쉼표(,) 다음에 병기할 수 있다.

③ 영상자료는 '영상자료'나 'motion picture'를 자료유형으로 한다.

④ 인쇄자료 중 문자로 쓰여진 자료(단행본, 고서와 고문서, 인쇄형식의 연속간행물 등)는 자료유형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단행본·고서와 고문서·인쇄형식의 연속간행물처럼 **문자로 쓰인 인쇄자료는 자료유형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생략이 허용되므로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자료유형은 대등표제 다음이 아니라 **본표제 다음**에 각괄호([ ])로 묶어 기재한다. 대등표제가 있으면 '본표제 [자료유형] = 대등표제'의 순서가 된다.

② X: 두 가지 이상의 자료유형을 기술해야 할 때에는 주된 유형을 먼저 적고, 나머지는 **원괄호(( ))로 묶어 부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악보(점자자료)]'처럼 기재하며, 쉼표 뒤에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다.

③ X: 영상자료의 유형을 표시할 때에는 **'영화'와 '비디오녹화자료'를 구별**한다. 영화에는 '영화' 또는 'motion picture'를, 비디오녹화자료에는 '비디오녹화자료' 또는 'videorecording'을 쓴다. 따라서 '영상자료'와 'motion picture'를 서로 대응하는 한글·영문 자료유형명으로 제시한 것은 잘못이다.

④ O: 단행본, 고서와 고문서, 인쇄형식의 연속간행물 등 **문자로 쓰인 인쇄자료**는 자료유형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는 인쇄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의 표시를 생략한다는 뜻이 아니라, 선지에 제시된 문자자료에 생략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NoteBase

문 9. 한국목록규칙 제4판의 자료특성사항 기술사례가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료유형: 지도자료, 기술사례: 축척 1 : 50,000

② 자료유형: 악보, 기술사례: 관현악총보

③ 자료유형: 녹음자료, 기술사례: 녹음 카세트 1개

④ 자료유형: 연속간행물, 기술사례: 제1집(1980년)-제11집(1990년)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녹음 카세트 1개'는 매체의 종류와 수량을 나타내므로 **형태사항**에 기술한다. 녹음자료 자체에는 **자료특성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지도자료의 자료특성사항에는 **축척 및 좌표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축척 1 : 50,000'은 지도에서 실제 거리를 얼마나 줄여 나타냈는지 밝히는 축척표시이므로 이에 해당한다.

② O: 악보의 자료특성사항에는 **악보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관현악총보'는 관현악의 여러 악기 파트를 함께 볼 수 있도록 나타낸 악보의 형식을 뜻하므로 적절한 기술사례이다.

③ X: '녹음 카세트 1개'에서 '녹음 카세트'는 특정자료종별을, '1개'는 수량을 나타낸다. 이는 **형태사항의 특정자료종별과 수량**에 기술할 내용이다. 녹음자료 자체에는 자료특성사항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 사례를 자료특성사항으로 분류한 것이 잘못이다.

④ O: 연속간행물의 자료특성사항에는 **권호차와 연월차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제1집'과 '제11집'은 권호차이고, 괄호 안의 '1980년'과 '1990년'은 연월차이다. '제1집(1980년)-제11집(1990년)'은 처음과 마지막 권호 및 해당 연도를 연결한 기술이다.

NoteBase

문 10. RDA에서 표현형의 식별을 위한 요소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표현형의 언어
ㄴ. 내용유형
ㄷ. 수록매체 유형
ㄹ. 발행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표현형은 저작이 언어·기호·소리 등으로 실현된 모습이므로, **표현형의 언어와 내용유형**으로 식별한다. 내용을 담는 매체의 형태와 발행지는 구현형에 관한 요소이다.

보기별 해설

ㄱ. 표현형 요소: 표현형의 언어는 저작이 어떤 언어로 표현되었는지를 나타낸다. 같은 저작의 한국어 표현형과 영어 표현형을 구별하듯, **표현에 사용된 언어**는 표현형 식별의 기준이 된다.

ㄴ. 표현형 요소: 내용유형은 내용이 표현되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형식과 이를 지각하는 감각을 반영한다. 텍스트, 구어, 연주음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내용을 담는 용기가 아니라 **내용이 표현된 형식**을 나타내므로 표현형의 요소이다.

ㄷ. 구현형 요소: 수록매체 유형은 내용을 저장하는 매체와 그 용기의 형식, 내용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중개 장치를 함께 고려한 구분이다. 책자, 오디오디스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내용을 담는 매체의 형태**를 나타내므로 표현형이 아니라 구현형의 요소이다.

ㄹ. 구현형 요소: 발행지는 자료의 발행과 관련된 장소이다. 저작이 어떤 언어나 형식으로 표현되었는지가 아니라 **어디에서 발행되었는지**에 관한 정보이므로 구현형 식별의 요소이다.

표현형 식별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ㄱ과 ㄴ이며, 이 조합은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1. 학문(지식)분류 학자와 도서관 분류표의 영향관계 표시가 옳은 것은?

① 헤겔(Hegel) - 서지분류법(BC)

② 베이컨(Bacon) - 미의회도서관분류법(LCC)

③ 앙페르(Ampere) - 주제분류법(SC)

④ 콩트(Comte) - 전개분류법(EC)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커터의 전개분류법(EC)은 **콩트의 학문분류**에서 영향을 받았다.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나아가는 발전 관계를 분류 배열에 반영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X: 헤겔의 사상과 연결되는 대표적인 도서분류법은 서지분류법(BC)이 아니라 **해리스 분류법**이다. 해리스는 이성을 중시한 헤겔 철학의 영향을 받아 과학을 앞에 두고, 과학·예술·역사의 순서로 배열하였다.

② X: 베이컨의 학문분류가 해리스 분류법을 거쳐 영향을 준 대표적인 분류표는 **듀이십진분류법(DDC)**이다. 베이컨은 기억·상상·이성에 대응하여 역사·시·철학을 배열하였다. 해리스는 이 순서를 뒤집어 과학·예술·역사로 배열하였고, DDC는 이러한 역베이컨식 배열의 영향을 받았다. 이를 미의회도서관분류법(LCC)과 연결한 것이 잘못이다.

③ X: 앙페르의 학문분류와 연결되는 것은 주제분류법(SC)이 아니라 랑가나단의 **콜론분류법(CC)**이다. 앙페르는 순수학문 다음에 그에 대응하는 응용학문을 배치하였다. 물리학 다음에 공학, 식물학 다음에 농학을 두는 관계가 그 예이며, 이러한 배열이 CC에 반영되었다.

④ O: 커터의 전개분류법(EC)은 **콩트의 학문분류**의 영향을 받았다. 콩트는 일반성이 큰 학문에서 더 특수하고 복잡한 학문으로 나아가는 발전 관계를 중시하였다. EC는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여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나아가는 진화적 배열을 분류 원리에 반영하였다.

NoteBase

문 12. KDC 제6판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적용한 『행정이론 및 철학』의 분류기호는?

350 행정학
특수행정은 해당주제 아래에 분류한다. 예: 군사행정 391; 교통행정 326.31
350.01-09는 표준구분에 따라 세분한다.
표준구분표
-01 철학 및 이론

① 350.1
② 350.01
③ 351
④ 350.001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제시된 분류표는 행정학 350을 **350.01~350.09에서 표준구분**하도록 지시한다. '철학 및 이론'의 기호 -01을 적용하면 '행정이론 및 철학'의 분류기호는 350.01이 된다.

공통 해설

'행정이론 및 철학'은 행정학의 이론과 철학을 다루므로 기본 주제기호는 350이다. 제시된 '350.01-09는 표준구분에 따라 세분한다'는 지시에 따라, 이 범위에서 표준구분표의 '철학 및 이론'에 해당하는 -01을 적용한다. 350 뒤에 01을 붙이고 세 번째 숫자 뒤에 소수점을 두면 **350.01**이 된다.

이때 분류표가 지정한 **0의 자리와 개수**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 소수점 뒤를 1이나 001로 바꾼 350.1·350.001은 주어진 세분 지시와 다르며, 351도 기본 주제기호 350에 표준구분 -01을 붙인 기호가 아니다.

NoteBase

문 13. DDC 제23판을 적용하여 분류한 조합과정과 분류기호이다. 적용된 ㉮ ~ ㉲ Table의 종류가 다른 것은?

Spanish Grammar → 46 +㉮(−5) = 465
Phonology of Portuguese → 469 +㉯(−15) = 469.15
French-English Dictionary → 44 +㉰(−3) +㉱(−21) = 443.21

① ㉮
② ㉯
③ ㉰
④ ㉱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의 -21은 사전에 함께 쓰인 언어인 영어를 나타내므로 **Table 6의 기호**이다. 문법·음운·사전이라는 언어의 세부 측면을 나타내는 ㉮·㉯·㉰는 Table 4에서 가져온다.

선지별 해설

비교 기준은 결합한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그 기호를 가져온 보조표이다. Table 4는 개별 언어·어족의 문법, 음운, 사전 등 세부 측면을 구분하고, Table 6은 영어 등 언어 자체를 구분한다. 제시된 조합과정의 '+'는 산술적 덧셈이 아니라 분류기호의 결합을 뜻하며, 보조표 기호 앞의 '-'는 음수 표시가 아니다.

① ㉮: Table 4의 -5는 **문법**을 나타낸다. 스페인어의 기본기호 46에 문법 기호 5를 결합하여 465가 되므로, ㉮는 개별 언어의 세부 측면을 나타내는 Table 4이다.

② ㉯: Table 4의 -15는 **음운론·음성학**에 해당하는 기호이다. 포르투갈어의 기본기호 469에 15를 결합하고 소수점을 배치하여 469.15가 되므로, ㉯도 Table 4이다.

③ ㉰: Table 4의 -3은 **사전**을 나타낸다. 프랑스어의 기본기호 44에 3을 결합하여 프랑스어 사전을 나타내는 443을 만든다. 뒤에 다른 언어의 기호가 이어져도 ㉰ 자체는 사전이라는 세부 측면을 표시하므로 Table 4이다.

④ ㉱: Table 6의 -21은 **영어라는 언어 자체**를 나타낸다. 이중언어사전은 Table 4의 -3에 Table 6의 언어 기호를 결합하라는 지시에 따라 분류한다. 제시된 프랑스어-영어 사전에서는 443에 영어 기호 21을 결합하여 443.21이 되므로, ㉱는 Table 6이다.

㉮·㉯·㉰는 모두 Table 4이고, ㉱만 Table 6이므로 종류가 다른 것은 ④의 ㉱이다.

NoteBase

문 14. KDC 제6판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적용한 『대구지역 전염병 대응』의 분류기호는?

517.6 예방의학
.62 지리적 분포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

지역구분표	
-1	아시아
-11	대한민국
-118	경상도
-1184	대구광역시

① 517.61184
② 517.621184
③ 517.62184
④ 517.6201184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제시된 본표의 517.62 '지리적 분포'에 대구광역시의 지역기호 **1184를 직접 이어 붙인다**. 중간에 0을 넣지 않으므로 분류기호는 517.621184가 된다.

공통 해설

제시된 본표에서 517.6은 '예방의학'이고, 그 아래의 .62 '지리적 분포'는 완전한 분류기호로 517.62를 뜻한다. 이 항목에는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는 지시가 있으므로, 『대구지역 전염병 대응』은 517.62 뒤에 대구광역시의 지역기호를 직접 붙여 분류한다.

지역구분표의 대구광역시는 -1184이다. 앞의 붙임표는 보조기호임을 나타내므로 분류기호에 옮기지 않고, 숫자 1184를 붙인다. 따라서 **517.62를 그대로 유지하고 1184 전체를 바로 연결**한 517.621184가 된다. 본표 기호나 지역기호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두 기호 사이에 0을 끼워 넣으면 제시된 세분 지시와 맞지 않는다.

NoteBase

문 15. KDC 제6판 본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별법을 적용한 분류기호로 옳지 않은 것은?

326.3 교통
.39 관광학
.393 관광상품
국제관광, 생태관광자원, 문화관광자원,
관광이벤트 등을 포함한다.
별법: 도서관에 따라 001–999와 같이
주제구분할 수 있다.

① 스포츠 관광 – 326.393692

② 음악 관광 – 326.39367

③ 건축 관광 – 326.39361

④ 의료 관광 – 326.39351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KDC 제6판에서 건축·건축학은 **540**에 분류하며, 종전의 610은 미사용 기호이다. 따라서 건축 관광은 관광상품 기호 326.393에 54를 붙인 **326.39354**로 분류한다.

선지별 해설

제시된 별법은 관광상품의 기본기호 326.393 뒤에 해당 주제의 본표 기호를 붙여 세분하는 방법이다. 이때 주제기호 끝에서 자릿수를 채우는 0은 생략한다.

① O: 스포츠의 주제기호는 692(체육학, 스포츠)이다. 326.393 뒤에 692를 붙이면 326.393692가 되므로 스포츠 관광의 분류기호와 일치한다.

② O: 음악의 주제기호는 670이다. 끝의 0을 생략한 **67을 부가**하므로 음악 관광의 분류기호는 326.39367이다.

③ X: KDC 제6판에서는 종전의 540 건축공학과 610 건축술을 **540 건축, 건축학으로 통합**하였으며, 610은 미사용이다. 따라서 610에서 가져온 61을 붙일 수 없고, 540의 끝의 0을 생략한 54를 붙여 건축 관광을 **326.39354**로 분류해야 한다.

④ O: 의학의 주제기호는 510이다. 끝의 0을 생략한 **51을 부가**하므로 의료 관광의 분류기호는 326.39351이다.

NoteBase

문 16. 분류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석합성식 분류표는 패싯 분류표라고도 한다.
ㄴ. 십진 분류표는 LCC, DDC, NDC 등이 있다.
ㄷ. 종합(일반)분류표는 지식의 전 주제 분야를 망라하여 체계화한 분류표이다.
ㄹ. 열거식 분류표는 모든 지식 세계를 각각의 주제나 형식에 따라 최고의 유개념에서 최저의 종개념까지 체계적으로 세분·계층화한 분류표이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ㄴ의 LCC는 **십진 분류표가 아니다**. DDC와 NDC는 지식을 0~9의 숫자로 나누어 세분하지만, LCC는 알파벳으로 주류를 구분하고 숫자를 결합하는 비십진 분류표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분석합성식 분류표는 문헌의 주제를 여러 측면인 패싯으로 **분석한 뒤, 각 요소를 규칙에 따라 합성**하여 복합주제를 표현하므로 패싯 분류표라고도 한다. 주제를 구성 요소로 나누는 것이 분석이고, 그 요소들의 분류기호를 결합하는 것이 합성이다.

ㄴ. X: DDC는 듀이십진분류법, NDC는 일본십진분류법으로 십진 분류표에 해당한다. 그러나 **LCC는 비십진 분류표**이다. LCC는 지식을 21개 주류로 나누어 알파벳으로 표시하고, 세부 주제에 숫자 등을 결합한다. 숫자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십진 분류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기에서 LCC를 십진 분류표의 사례로 든 부분을 고쳐야 한다.

ㄷ. O: 종합분류표 또는 일반분류표는 **지식의 전 주제 분야**를 포괄하여 체계화한다. 특정 학문이나 주제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분류표와 분류 대상의 범위에서 구별된다.

ㄹ. O: 열거식 분류표는 지식의 주제나 형식을 넓은 상위 개념에서 좁은 하위 개념으로 세분하고, 그 항목들을 **미리 열거하여 계층적으로 배열**한다. 유개념은 더 넓은 범위의 상위 개념이고 종개념은 그 아래의 구체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최고의 유개념에서 최저의 종개념까지 세분·계층화한다는 설명이 성립한다.

옳은 보기는 ㄱ·ㄷ·ㄹ이며, 이 조합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7. DDC 제23판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적용한 『미중외교(미국과 중국의 국제관계)』의 분류기호는?

327 International relations
.3–.9 Foreign relations of specific continents, countries, localities
Class here foreign policy
Add to base number 327 notation 3–9 from Table 2; then, for relations between that notation or region and another nation or region, add 0 and to the result add notation 1–9 from Table 2
Table 2.
–5 Asia
–51 China and adjacent areas
–7 North America
–73 United States

① 327.7351
② 327.73051
③ 327.07351
④ 327.073051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미국의 지리기호 73 뒤에 **두 국가 간 관계를 나타내는 0**을 넣고 중국의 지리기호 51을 이어 붙인다. 이때 기본기호 327과 미국의 지리기호 사이에는 0을 넣지 않는다.

공통 해설

제시된 지침은 국제관계의 기본기호 327에 첫 국가의 제2보조표 지리기호를 붙이고,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나타낼 때 그 뒤에 **0과 상대 국가의 지리기호**를 차례로 붙이도록 한다. 여기서 기호를 더한다는 것은 수치를 산술적으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이어 붙여 분류기호를 확장한다는 뜻이다.

문제의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적용하면, 미국의 지리기호 73을 327에 붙인 327.73에 관계 표시 0과 중국의 지리기호 51을 이어 붙여 327.73051이 된다. 0은 두 국가의 지리기호 사이에 들어가며, 327과 첫 국가의 지리기호 73 사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0을 생략하거나 기본기호 바로 뒤에 넣은 기호는 제시된 합성 지침에 맞지 않는다.

NoteBase

문 18.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의 사용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저자기호의 기본기호는 문자로 이루어진다.

② 개인의 전기서는 피전자명을 기본기호의 대상어로 삼아 기호화한다.

③ 판차가 있을 경우 기본기호 다음에 판차를 숫자화하여 기재한다.

④ 권차, 권호 및 복본기호는 기본기호 다음에 기호를 부기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개인의 전기서는 그 책을 쓴 사람이 아니라 **전기의 대상인 피전자**의 이름으로 기본기호를 매긴다. 같은 인물에 관한 전기서를 함께 모으기 위한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기본기호는 **문자기호와 숫자기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대상어의 첫 음절을 문자기호로 삼고, 둘째 음절의 자음과 모음을 기호표에 따라 숫자화하여 합성한다. 따라서 문자만으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② O: 피전자는 전기에서 생애와 활동을 다루는 인물이다. 개인의 전기서는 **피전자명을 기본기호의 대상어**로 삼는다. 이렇게 하면 같은 분류항목 안에서 저자가 서로 달라도 동일 인물에 관한 전기서를 함께 모을 수 있다.

③ X: 판차를 숫자화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기재 위치가 잘못이다. 판차는 일반적으로 **그 저작의 표제기호 다음**에 매긴다. 표제기호는 기본기호 뒤에 붙여 같은 저자의 서로 다른 저작을 구별하는 기호이므로, 판차기호를 기본기호 바로 뒤에 붙이는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④ X: 권차·권호 및 복본기호는 **부차적 기호의 마지막**에 부기한다. 기본기호 바로 뒤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표제기호·판차기호 등 필요한 기호를 매긴 뒤에 표시한다. 권차·권호는 해당 자료가 어느 권이나 호인지를, 복본기호는 동일 자료의 여러 소장본 중 어느 것인지를 구별한다.

NoteBase

문 19. DDC 제23판의 분류규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료가 주제의 이론과 응용을 함께 다룬 경우에는 이론에 분류한다.
ㄴ. 자료가 복수 주제를 동등하게 다룬 경우에는 분류표상 선치하는 주제에 분류한다.
ㄷ. 한 국가의 통치자(왕, 황제, 대통령, 수상 등)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그 국가의 역사에 분류한다.
ㄹ. 단일 주제를 다룬 자료에서 관점이 2개 이상일 때, 특별히 저자가 강조한 관점이 없으면 분류표에서 규정한 학제적 기호에 분류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ㄱ의 '이론에 분류한다'는 **'응용에 분류한다'**로 고쳐야 한다. 주제의 이론과 그 실제 적용을 함께 다룬 자료는 응용 분야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X: 주제의 이론과 응용을 함께 다룬 경우에는 **응용에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론이 어느 학문에서 나왔는지보다 그 이론을 어떤 분야에 적용하는지가 분류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론에 분류한다'는 표현을 '응용에 분류한다'로 고친다.

ㄴ. O: 두 주제를 동등하게 다루고 한 주제가 다른 주제를 설명하거나 도입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분류표에서 먼저 나오는 주제**에 분류하는 선행규칙을 적용한다. 자료의 제목이나 본문에서 먼저 언급된 주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별도의 분류지시가 있으면 이를 따르며, 같은 상위 주제에 속하는 세 가지 이상의 주제를 동등하게 다루면 이들을 포괄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 기호에 분류하는 삼자포괄규칙을 적용한다.

ㄷ. O: 왕·황제·대통령·수상 등 한 국가의 통치자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은 **그 국가의 역사**에 분류한다. 국가 통치자로서의 활동과 재임에 관한 기록을 해당 국가의 역사적 맥락에 모으기 위한 것이다. 인물을 다루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전기 기호에 분류하지 않는다.

ㄹ. O: 하나의 주제를 여러 학문 분야의 관점에서 다루고 저자가 특별히 강조한 관점이 없다면, 분류표에 마련된 **학제적 기호**에 분류한다. 학제적 기호는 한 주제를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다룬 자료를 모으는 기호이다. 다만 자료에는 그 기호가 속한 학문 분야의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옳은 보기는 ㄴ·ㄷ·ㄹ이며, 이 조합은 ④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0. DDC 제23판을 적용하여 2020년에 한국어로 출판된 개인시집을 분류할 때, 조합과정이 옳은 것은?

① 895.7(Korean literature) + -1 (Table 3A: Poetry) + 5 (PERIOD TABLE: 2000–)

② 895.7(Korean literature) + 5 (PERIOD TABLE: 2000–) + -1 (Table 3A: Poetry)

③ 895.7(Korean literature) + -1 (Table 3B: Poetry) + 5 (PERIOD TABLE: 2000–)

④ 895.7(Korean literature) + 5 (PERIOD TABLE: 2000–) + -1 (Table 3B: Poetry)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개인시집은 **개인 저작용 Table 3A**를 적용하며, 시의 형식기호 뒤에 시대기호를 붙인다. 시대기호는 문학 기본기호에 바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시라는 형식을 먼저 구분한 뒤 덧붙인다.

올바른 순서

895.7(한국문학) → -1(Table 3A: 시) → 5(시대표: 2000–)

895.7(한국문학): 한국어 문학에 해당하는 기본기호를 먼저 정한다. 이 기호가 언어에 따른 문학의 범위를 정하며, 그 뒤에 문학형식과 시대를 세분하는 기호를 붙인다.

-1(Table 3A: 시): 개인시집은 한 작가의 작품이므로 **개인 저작용 Table 3A**에서 시의 형식기호 -1을 가져온다. 여러 작가의 작품을 모은 시선집에 사용하는 Table 3B와 구별한다. 기본기호 895.7 뒤에 1을 붙이면 한국의 시를 나타내는 895.71이 된다. -1의 붙임표는 보조표의 기호임을 나타내므로 완성된 분류기호에는 넣지 않는다.

5(시대표: 2000–): 한국문학의 시대표에서 2000년 이후를 나타내는 기호는 5이다. 문항이 제시한 시대기호 5를 **시의 형식기호 다음**에 붙여, 한국의 시를 시대에 따라 더 세분한다. 이 시대기호를 적용하여 895.71 뒤에 5를 붙이면 895.715가 된다. 다만 개인 저작의 시대기호는 해당 책의 출판연도만으로 정하지 않고, 작가의 문학시대를 기준으로 정하며 그 시대 밖에 출판된 작품에도 같은 시대기호를 적용한다. 따라서 실제 자료를 분류할 때에는 작가의 문학시대를 확인해야 하며, 2020년 출판이라는 정보만으로 시대기호 5를 확정할 수는 없다.

NoteBase